

News

거지는 'R의 공포'…국채 3년물 - 10년물 금리도 역전

한국경제

3년물 국고채 금리, 전날대비 0.257%p 급등한 연 4.104% 기록… 하루 상승 폭 연중 최고 수준… 장 개시 전 미국 연준의 자이언트스텝 영향
또한 오전 7시 30분에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이 총재의 매파발언 역시 채권시장에 충격 준 영향도 존재… 10년물 금리 3.997%로 장단기 금리 역전

집값 떨어지는데 이자 더 는다 주담대 금리 곧 7% 넘는다

머니S

미국 연준의 자이언트스텝으로 은행 주담대 최고금리 7% 넘어서는 것은 물론 8%선까지 위협할 것으로 보여… 금리차 좁히기 위해 한은도 빅스텝 단행해야 하는 상황
22일 기준 4대 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4.13~6.456%로 이미 6% 중반대로 올라와… 21일 기준 은행채 5년물 4.460%, 8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2.96%

신한은행, 서울 자치구 금고 입찰전 돌풍… '우리은행 시대' 저무나?

문화일보

이달부터 25개 구금고 입찰 속속 개시 중… 올해 각 자치구 금고 운영기관으로 선정되면 2026년까지 4년간 유휴 자금 보관, 유가증권 출납 및 보관 등 업무 맡을 수 있어…
그간 서울 자치구 금고 중 총 22개 구금고를 우리은행이 운영… 그러나 7일 은평구, 16일 구로구가 신한은행에 맡기기로 결정하면서 우리은행에 비상 걸려…

개인 CB사업 진출 노리는 '토스'…'레드오션'서 살아남을까

머니투데이

토스, 개인 CB 사업 라이선스 취득하기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 시기를 금융당국과 협의 중… 라이선스 받는 즉시 사업에 뛰어든다는 방침
기존 신평사 여신관련 데이터에 수입·지출·부동산·결제내역 등의 자산관련 데이터 추가 및 분석… 이를 통해 씽파일러 발생 현상 해소하겠다는 의도

'은행 예금으로의 이탈을 막아라'…4% 넘어 4.5% 저축보험도 출시

SBS Biz

오늘 동양생명 연 4.5% 확정금리형 저축보험 상품인 '무배당 앤젤더확실한저축보험' 출시… 기존 상품에서 금리 높여 개정된 상품
은행의 정기예금에 대한 경쟁력 확보 목적으로 풀이… 이차역마진을 방지하기 위해 금리 인상에 따라 운용자산이익률도 높인다면 저축보험 금리 인상 이어져 은행과의 경쟁 가능

메리츠화재, 설계사 수수료 '업계 평균'으로 재인상..."공격적 마케팅 재개하나"

위키리크스한국

메리츠화재, 최근 들어 13월차 이후 적용되는 설계사 지급 수수료를 소폭 인상하며 업계 평균 수준까지 끌어올려… 기존에는 13월차 이후부터는 400~500% 수준 수수료 지급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메리츠화재가 다시 영업력 강화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 존재… 다만 아직 사업비율이 안정되었다 보기 어려워 조금씩 영역 넓힐 것이라는 전망

절세 고객 모셔라…증권사 세금 서비스 고도화

데일리안

KB증권, 이달 초 고객 자산 관리 위해 세무 전문 자문위원 6명이 운영하는 절세연구소 열어… 자문위원은 전원 세무사로 베테랑 전문가들로 구성
NH투자증권, 지난달 고객들이 MTS 통해 한눈에 세금 데이터 확인 가능한 '마이 세금' 서비스 도입…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도 증권사들의 관련 서비스 추진에 영향

믿었던 삼전·네이버 마저 주가 급락에 종목 ELS 원금손실 우려 ↑

뉴스1

한국투자증권, 22일 기준 총 9개 ELS에서 원금손실위험 발생했다고 공지… 대부분 지난해 8월~11월 사이 설정된 ELS
현재 녹인이 발생한 ELS 대부분은 작년 하반기에 설정된 상품…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 9월 원화 ELS 발행 규모 69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8.6% 감소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시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입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시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시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